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1
----------	------

2025년 4월 3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02. 03. 이종배 의원(11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5. 2. 6.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5년 4월 3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혼합 음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마약 범죄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
- 실제로 마약 범죄는 2022년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단속·재활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였고,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은데,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고자 특별위원회¹⁾ 구성을 제안하려는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최근 서울특별시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터넷·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년·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처해있음.

※ 최근 마약류 오·남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은 2014년 9,98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10년간 약 2.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사범의 수 증가와 함께 2015년 이후 마약류사범 수가 1만명을 넘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음.²⁾

- 특히 마약류 사범이 저연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등을 통해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이 마약류를 손쉽게 접하게 되고 대량화로 인한 가격이 하락되는 등 마약범죄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물리적 장벽 완화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음.³⁾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강은영, “마약류 오·남용 실태”, 「한국의 사회동향 2024」(통계청(통계개발원)), 2024, 293면 이하 참조.

3) 김남희 외,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44면.

- 이러한 마약류 범죄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안전 위협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종합대책⁴⁾에 발맞추어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마약류 유입 차단 및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청소년 및 청년층 보호 또한 주요 목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⁵⁾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리 추진 체계도>

□ 서울시 마약류 관리 추진 체계도



(출처: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2023.11.2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의 3대 주요분야에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음(※ 9개 추진과제 ①여행자 일제검사 재개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②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불법 집중단속, ③불법 마약거래·유통 추적망 강화, ④처방제도 개선 등 환자보호 예방관리, ⑤범부처 합동점검 등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 ⑥의료용 마약류 거버넌스 구축, ⑦권역별 치료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등 치료 활성화, ⑧전국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 등 재활 기능 강화, ⑨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특히 시민 대상 교육 관련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찰청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023) 다양한 예방 교육을 추진함.

- 서울특별시의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홍보 사업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마약류 예방 교육 및 홍보 콘텐츠 제작·청년층(대학생) 예방 교육 운영·마약대응협의체 운영 등으로 일반시민과 특히 학교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은 교육청 체육 건강예술교육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희망학교 대상 교육 지원(연간 1,500회 규모)·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건강증진학교 운영 등이 추진됨.

※ 관련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약류 대응 예산은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4억 7,000만 원,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6억 625만 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14억 4,385만 원 등임. 또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사업으로 2억 8,180억 원이 편성되었음.

○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현재의 급격한 마약류범죄 증가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함.

5) 지난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위한 특별위원회’의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마약류 종합대책 수립(’23.5.) 이후 교육 및 홍보의 주된 실적으로는 ▲중·고등학교 710개교,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23만명 실시,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 ▲세계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청소년 마약류 접근차단을 위한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해왔음.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고교생 대상 학교기반 의무교육(교육청)은 이수율이 99%에 달하나 14~18세 마약사범의 43.7%가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의무교육 과정이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가해졌음.⁶⁾
- 또한, 학교 기반 의무교육 외적으로는 성인층 대상 교육·홍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⁷⁾
-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관기관 간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 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하여, 마약류 관련 종합적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4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음.
-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들 내용 중 특히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임.

6) 서울특별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3.5.).

7) 2024년 서울특별시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2024.2.).

< 그간 마약예방교육 한계(문제점) >

- ◆ (컨트롤 타워 부재) 「국가·광역·기초·학교」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부족
- ◆ (교육강사 인력 부족) 인력풀 부재 및 약사, 마퇴본부 강사 외 전문강사 인력 협소
- ◆ (획일적인 교육자료) 각 교육기관별 중복·유사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의 차별성 부족
- ◆ (교육 사각지대 발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발생

➡ (교육기반 측면)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교육 추진 필요

-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마약류 대응을 총괄하는 시민건강국⁸⁾ (보건복지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흥시설 합동 단속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민생사법경찰단⁹⁾(행정자치위원회), 학생 대상 교육 홍보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위원회) 등 다수의 부서 간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연락처

02-2180-7689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3 및 제3절 이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송경택,
유만희, 이성배 의원(11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청소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혼합 음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마약 범죄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

- 실제로 마약 범죄는 2022년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 단속 재활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였고,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은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 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3년 4월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료에 마약류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특정 음료를 마시면 학업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이며 접근했다. 그러나 그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마약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19명에,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그 대응책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및 학원가 주변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마약 범죄는 과거 특정 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까지 검은손을 뻗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마약 범죄는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만 13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에 마약 관련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마약 종류가 다양화되고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존 마약뿐 아니라 합성 마약,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유통 방식이 변화해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쉽고 은밀하게 거래되어 추적도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용 마약 처방이 증가하며 오남용 사례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946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으며, 청소년 처방 증가율은 최근 3년 동안 50%

가량 증가했다.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단속·재활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 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그 후로는 학교별 학부모 교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5. 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